



21일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대정119센터(왼쪽)와 성읍119센터의 119구조대 분대 구조대원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 ‘골든타임’ 확보 성과 119구조대 분대 확대

### 대정·성읍 추가돼 3개로 늘어

속보=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사고·재난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긴 소방서 119구조대 분대(본지 5월 20일자 5면 보도)를 확대 운영한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21일부터 소방서 원거리 지역 구조기능 강화를 위해 제주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와 제주동부소방서 성읍119센터에 ‘119구조대 분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119구조대는 소방서에 전문 구조자

격을 갖춘 인력과 기술력, 장비가 집중돼 있어 소방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난 피해, 대형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119구조대의 신속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19구조대 분대 확대 운영 방안을 논의해왔고 대정119센터와 성읍119센터에 119구조대 분대를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도내 119구조대 분대는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서부분대를 포함해 총 3개로 늘었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대정분대와 성읍 분대에는 구조대원이 각각 6명이 배치, 하

루에 2명씩 3교대로 운영된다. 구조차량도 1대씩 추가 운영된다.

한편 도내에서는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서부분대가 노형119센터에서 지난해 5월 18일부터 활동 중이다.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서부분대는 제주시 인구 밀집지역인 연동·노형·외도동의 서부권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성됐다.

1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발대 전보다 현장도착 시간이 19.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분대 운영 전 55%에 그쳤던 7분 이내 현장도착률은 서부분대 운영 후 75%로 20%포인트 상승하기도 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20.5 X 17.5 cm



‘119구조분대’가 운영되는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에서 구조대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소방 사각지대’ 대응 한층 강화된다

## 대정·성읍 2곳에 119구조분대 확대 운영

제주도내 ‘소방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21일부터 소방서 원거리지역 구조기능 강화를 위해 대정·성읍119센터에 ‘119구조분대’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119구조분대’ 확대는 원거리 지역에 대한 인명구조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새롭게 운영되는 119구조분대는 대정119센터와 성읍119지역센터에 각각 구조대원 6명과 차량 1대를 추가로 배치하며, 1일 2명씩 3교대로 운영된다.

소방당국은 제주시 인구 밀집지역 연동·노형·외도동의 서부권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제주 소방서 119구조대 노형분대를 발대,

운영하고 있다.

발대 1주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발대 전보다 현장도착 시간이 19.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 관계자는 “출동 사각지대 해소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119구조분대 2개대가 제주지역 원거리지역 구조기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119구조분대 확대·운영으로 인명구조에 보다 효율적인 출동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전문 인력과 구조장비를 점차적으로 보강해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